

2001. 4. 17 제3호

WFFIS Daily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

WFFIS Daily

- | | |
|--------------|-------------------|
| 1 맨스필드 파크 | 6 세계의 영화제 |
| 2 WFFIS News | 미국보스턴 국제영화제 |
| 여성운동가의 밤 | 자원봉사자 인터뷰 |
| 3 감추 오늘의 영화 | 영화상식 |
| 진정광애 | 누벨바그 |
| 남자와 기생 | 잠깐 퀴즈 |
| 역사와 기억 | 7 English Edition |
| 4 감독과의 대화 | |
| 아녜스 바르다 | |
| 사피 하마노 | |
| 바바라 해머 | |
| 환객 인터뷰 | |



■ 오늘의 영화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 1회(11:00) 〈맨스필드 파크〉
- 2회(1:30) 〈방랑자〉
- 3회(4:00) 〈남자와 기생〉
- 4회(6:30) 〈진정광애〉★
- 5회(9:20) 〈5시에서 7시까지의 끝레오〉

하이퍼텍 나다

- 1회(11:00) 〈말따 신부〉
- 2회(1:30) 〈동행〉/〈평화란 없다〉/〈말들의 명절〉/
〈아름답고 방자한 자궁〉★
- 3회(4:00) 〈역사와 기억〉/〈금류속의 요정〉/
〈기억과 시간〉
- 4회(6:30) 〈가이아 걸즈〉
- 5회(9:20) 아시아 단편경선 2 : 〈병숙의 무언가〉/
〈코헨의 아내〉/〈나 좀 살려줘〉/
〈마추섬의 비극〉/〈데드라인〉

■ 오늘의 이벤트

필라댄스

오후 7:00 아녜스 바르다 포럼

★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있습니다.

※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맨스필드 파크

영국/감독 패트리샤 로제마/1999/111분/35mm/칼라

최근 2, 3년간 세계 전역에서 여성감독에 의해 제작된 영화들 중 우수한 작품만 선정하여 상영하는 뉴 커런츠 부문의 특색 중의 하나는 여성의 정체성을 다루는 영화가 많다는 것.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영화화한 〈맨스필드 파크〉는 여성영화의 명장 패트리샤 로제마 감독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이다.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신분과 재도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을 향해 굽히지 않는 여성을 신선한 감각으로 그려냈다.

생생하고 감명한 주체성을 가진 여주인공과 오스틴의 트레이드 마크인 쾌활한 풍자가 여성의 판타지를 능란하게 펼쳐보이는 로제마 감독의 창조성과 만나 영화의 맛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여성운동가의 밤

차이들 안에서의 연대(Solidarity in differences)

16일 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가의 밤' 행사에 팔십여명의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차이들 안에서의 연대(Solidarity in differences)"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여성영상공동체 부문에 초청된 공동제작팀과 여성단체 실무자들을 비롯, 모든 여성운동가들을 위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자정이 넘도록 여성운동가의 역할과 지향점에 대한 열변을 토해 여성운동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액티비스트 지혜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 김신아 프로그래머의 여성영상공동체부문 및 작품 소개 ▲ 공동체부문에 영화를 출품한 감독들의 작품 소개 ▲ <생생활활>과 <차침연> 집회 비디오 클립 상영 ▲ 바바라 해머 감독과의 대화 ▲ 차이들,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영화만들기/액티비즘을 주제로 한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여성영상공동체와 작품들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장희선 감독은 <재희이야기>가 "성희롱 예방을 목적으로 만든 극영화"라 소개하고 "직장이라는 현장으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IMF 이후 더욱 열악해진 여성노동자를 소재로 한 <평화한 없다>의 윤은정 감독은 여성이 처한 이중고를 지적하며 "여전히 노동자이기보다는 여성이라는 점에 중점을 둬으로써 현실의 가부장성을 드러내고 싶었다"고 의도를 밝혔다. <동행>은 "제도에 이어 관습이라는 벽 속에서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하는 레즈비언이나 미혼모 등"을 그리고자 했던 작품이며 "다양한 삶의 여성을 그리고 싶었던 만큼 <동행>은 아직 미완의 작품"이라 덧붙였다.

지난 해 아방공 종묘 점거 프로젝트를 담은 <아름답고 방자한 자궁>의 김명진 감독은 "여덟 명이 모여 기획했던 다양한 예술행위가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유린을 당했던 당시의 상황을 담은 작품"이라 설명했다. 또한 <달들의 명절>은 여성의 일상 속에 제일 큰 굴곡인 명절의 불평등함에 초점을 둔 것이라 소개했다.

이어 마련된 비디오 플립 순서에서는 행사의 주제이기도 한 "차이의 정치학"에 주목하는 여성운동가들의 공연이 녹화된 작품이 상영됐다. <차침연(차이가 힘이 되는 여성연대)>과 <생생활활>의 공연 및 집회 비디오는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각각 집회의 모습과 흥미로운 퍼포먼스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개막작 <거류>에 이어 두 번째 매진 사례를 이룬 <역사수업>의 해머 감독은 질문과 답변 시간 내내 좌중을 웃음과 화기애애함으로 이끌었다. 때로는 시를 읊듯이 때로는 춤을 추듯이 답을 했는데 페미니즘은 "즐거움(fun)"이라고 말해 갈채를 받았다. 왜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를 선택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나와 같은 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세계가 바뀌었습니다"라고 노레부르듯 답해 환호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천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이며 "유일한 장애가 있다면 돈"이라고 답하는 등 이날 모임을 잔치로 이끌어 나갔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토론회는 아트(art)와 액티비즘(activism)이 결합하는 방식을 비롯, 페미니스트 혹은 여성운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방향성과 관련된 갈등과 불만, 고민과 모순들 그리고 새로운 움직임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져 한밤의 하이라이트를 이뤘다.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난상토론회 열린다 금요일 <재희 이야기> 상영 후

오는 금요일(20일)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를 주제로 난상토론회가 열린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대표 고정갑희)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재희이야기> 상영 후 이뤄지는 감독과의 대화에 이어 필라데스 4층에서 마련된다. 이 자리에는 <재희이야기>의 장희선 감독과 각 언론사 기자들 및 서울여성노동자협회 사무국장, 성폭력 상담소, 백인위원회 등이